

지역 소식통

부안군, 재난취약시설 점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이달 말까지 불철 해빙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급경사지, 옹벽·석축, 건설현장, 문화재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 균열·변형 발생 여부와 침하·가울어짐 등 발생여부, 배수시설 노후화 상태 등이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필수 최소인원 참석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점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현장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시설물(통제선,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를 통해 조치사항 이행 전까지의 현장안전을 확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예산 확보를 통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해빙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적인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포도 배부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식 기자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오는 6월 18~20일 까지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위원회가 지난 10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18회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 추진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축제 방향을 확정했다.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이전 대면방식의 축제와는 다르게 고창군 통합 온라인쇼핑몰인 '높고창몰'과 연계해 온라인 축제를 위주로 운영한다.

승차구매(드라이브스투) 방식의 행사장은 접근성 등을 고려해 고창군 농산물 유통센터로 변경해 6월18부터 20일까지(3일간) 연다.

진기영 축제위원장은 "고창군의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고창 북분자와 수박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축제(비대면 프로그램)와 오프라인(승차구매 판매)을 병행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도와 협력체계 강화”

고창군수, 전북도청 예산과 등 6개 부서 방문 지역현안사업 추진, 국·도비 확보 지원 요청

유기상 고창군수가 11일 전북도청을 방문, 주요 국·과장과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의 조기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유기상 군수는 전북도 운영일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면담하고, 예산과·지역정책과 등 6개 부서를 방문했다.

이날 고창군은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통합습벨트 조성사업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고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고창 서

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자룡천 지방하천정비사업 ▲상하지구 지역수요맞춤사업 등 주요 신규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유 군수는 운영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만나 고창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민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무장기포지 정비, 전병준 장군 기념

관 건립 등에 전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도 한근호 예산과장과 면담하고 ‘고창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구름골 자연휴양림(공립) 조성사업’ 등 군특예산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주요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2022년 정부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북도뿐만 아니라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내년도 현안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33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 추진

정읍시, 경제림·산림재해 방지·생활권 주변 118ha 7억원 투입

정읍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를 포함, 사유림 118ha에 7억원을 투입해 33만 그루의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나무를 심어 가치 있는 산림 자원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주요 사업은 질 좋은 목재 생산·공급을 위한 경제림 100ha,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10ha,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8ha 규모다.

조림목은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조림지도’를 적극 활용해 기능에 맞는 수종을 1차로 선별하고 사유림의 산주 의견을 수용해 선정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종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권장하는 미세먼지 차단과 흡착기능이 높은 큰 나무로

선정한다. 조림 사업이 완료되면 생태계의 보전은 물론 미세먼지와 산업화의 잔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산사태 방지나 수원함양, 산주의 소득 증대 등 보이지 않는 수문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조림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숲을 만들기 위한 시작 단계”라며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의 숲은 16.8g에 달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며, 나무 1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다.

또, 도시 숲은 평균 25.6%의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40.9%를 저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 신규 입점 업체 모집

4월 9일까지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신청·접수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농·특산물 거점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정읍 단풍미인쇼핑몰에 신규 입점할 업체를 모집한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시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하는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이다. 신청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서 생산·가공된 상품에 대한 합법적 통신판매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음 달 9일까지 입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063-539-6263)로 전화하거나,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일상화된 것을 감안해 지역 내 희망업체를 추가 입점시킴으로써 농특산물 온라인 판로 확대와 다양한 상품구성을 통해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2년에 오픈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단풍미인쇼핑몰은 100여종의 매출을 올리며 지자체 운영 쇼핑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간 108개 입점 업체 총 850여 개의 판매상품을 구성하고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농특산물 소외 1번지로 명성을 지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

6개 초·중·고교 선정

정읍시가 지역 내 인문·역사 자원을 계승해 발전시킬 미래세대 주인공 육성에 나섰다.

지역 내 초중고 학생들의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을 갖춰 정읍의 풍부한 인문·역사 자원을 지역을 넘어 세계로 알리겠다는 취지다.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인문 역사 분야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지역 내 6개 초·중·고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외부 전문가 초청 강사비와 인재 육성에 필요한 프로그램비, 기타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운영



비 등 학교당 1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시에 따르면 공모에 신청한 12개 학교 중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선정됐다. 역사 분야는 태인고등학교 태인선

비문화 본류(本流) 2단계 프로그램이 선정됐으며, 인문 분야는 서영여자고등학교 ‘온 힘으로’ 학생 인문 책 쓰기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또한, 인문·역사 분야에는 덕천·수곡초등학교 ‘인문·역사 분야 창의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함께 신태인중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 탐구 및 정신 계승’, 학산중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문 역사 독서 교육’이 각각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우리 고창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업 추진 후 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읍·면 현황청취 진행

위도 치유의 숲 조성 현장 방문 등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021년도 읍·면 주요 업무 및 특색사업 추진계획 등 점검을 위한 읍·면 현황청취를 진행한다.

이번 읍면 현황청취는 11일 위도면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함께 읍면별 업무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도면 현황청취는 면사무소에서 면정 주요업무와 위도 오마이갯길 조성, 작은도서관 시범 설치 등 특색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뒤 위도 치유의 숲 조성 현장 등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정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읍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읍면과 더 활발히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